

“장애인 향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나눴다”

남가주밀알, 2021 밀알 온라인 라이브 사랑의캠프 개최

남가주 밀알선교단(이종희 단장)이 개최한 '2021 밀알 온라인 사랑의캠프'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남가주, 북가주, 밴쿠버등지에서 모두 2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됐다.

“지저스 커넥션(Jesus Connection, 요15:5)”이란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사랑의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처럼 모든 참가자와 봉사자들이 모두 같은 공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게임과 친교를 함께 하며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캠프 첫날은 밀알 사무실에서 드라이브 쓰루를 통해 캠프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손세정제, 티셔츠, 마스크, 주스, 등의 간단한 선물을 함께 온라인 캠프에 필요한 여러 물품이 담긴 패키지를 전달했다.

곧이어 UMC 원로목회자인 이은철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거행됐다. 각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장애인 참가자의 발을 닦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냈고, 성찬식을 통해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동등하게 누려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캠프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각 참가자 가정마다 도시락과 피자 등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둘째 날은 신나는 음악에 맞춘 댄스타임과 각종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하고 재미난 게임들이 진행됐으며 지역별, 연령별 소그룹 모임으로 정겨운 대화를 이어갔다.

올해 사랑의캠프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도 마련돼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위로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됐으며, 한국어 세미나는 밴쿠버 밀알 ‘유혜정’ 사모가 ‘코칭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된 2021 밀알 사랑의캠프 ©남가주밀알

에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영어 세미나는 다이안 도코 김 선생의 인도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내면적 갈등과 상처’에 대해 나눴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이종희 단장의 인도로 폐회예배와 진행됐으며 소감을 나누며 내년 캠프를 기약했다.

이종희 단장은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돼 온 코로나19 사태로 큰 고통

을 당하며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번 2021년 밀알 온라인 라이브 사랑의 캠프를 통해 기쁨과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기를 바란다”며 “캠프를 섬겨준 사역자들과 봉사자 및 기도와 후원, 펀드레이징으로 힘써주신 교회와 모든 밀알가족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사랑의 캠프를 위해 10년 이상 섬긴 김형건,

김성태 선생과 위호빈 선생에게 바이트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라이프타임(Lifetime)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했다.

한편 남가주밀알선교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기독교단체로 장애인들과 함께 꿈과 소망, 믿음을 나누기 위해 1997년 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후원자들의 순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LA 평통, 월드쉐어USA 노숙자 지원 사역에 협력

LA 평통 1차로 월드쉐어USA에 세정제 전달



LA평통은 월드쉐어USA 강태광 목사에게 1차로 세정제를 지원했다.



월드쉐어USA 노숙사역에 동참한 대학생 봉사자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스앤젤레스협의회(회장 에드워드 구, 이하 LA 평통)가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의 노숙자 지원 사역에 협력한다.

LA 평통은 지난 4일, 1차로 월드쉐어USA에 세정제를 전달했고, 오는 11일에는 2차로 세정제와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태광 목사는 “더운 날씨에 노

숙자들에게 물품들을 나눠주기 위해 텐트촌을 누비다보면 온 몸이 땀에 젖지만, 봉사자들이 노숙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 감동과 도전을 받는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자들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시작한 노숙자 텐트촌 방문은 중단 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드쉐어 USA는 매주 노숙

자와 도시 빈민 돌봄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월 2회 다운 타운 노숙자 텐트촌을 찾아 음식과 물, 화장지,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현성 목사) 대학부의 청년들이 자원 봉사자로 협력했고 오는 8일에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기독교일보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제공

GMU 학사학위 과정은 신학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의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항체검사는 체혈사가 방문해 직접 체혈하며 백신 미 접종자는 코비드 테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은 본사 213-739-0403, 213-434-1170로 하면된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51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임시총회 소집 공고

제51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수석부회장을 세우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임시총회 소집공고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오전11시
장소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
3200 Wilshire Blvd, #1205
Los Angeles, CA 90010

문의전화: 총무 김영배 목사(323-608-1010)

51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조병국 목사

수석부회장 후보 접수공고

접수마감 : 2021년 8월 24일(화) 오후 4시
후보자 제출서류

1. 이력서
2. 목사안수증명서
3. 교단 혹은 지역기독교교회협의회 추천서
4. 최종학력증명서(M. DIV.: 목회학석사 기준)
5. 섬기는 교회 최근 후보 한부
6. 발전기금:\$3,000(Check)

서류 접수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
자스민 사무국장 (310-321-2348)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1차 총회공천위원회
위원장 : 김재율 목사

“코로나로 전도 막혔다? ‘새로운 기회 열렸다’ 는 창의적 사고 필요”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김병삼 목사·이상훈 교수 (下)

“다가올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 을 모이게 할 뿐 아니라 흠어져서 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예배의 자리이며,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 기 때문이다. 이 예배 형태를 활용 하여 교회의 건물을 넘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음은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출간을 맞아 필진 중 한 명인 김병삼 목사와 책을 엮은 이상훈 교수(미성대 총장)와의 인터뷰 두 번째 내용.

-모일 수 없게 되면서 목회자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전도의 '접촉점'에 대한 것인데요.

김병삼 목사: '접촉'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예전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라고만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그런 만남을 싫어합니다.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접촉으로 바뀌고 있지요. 저도 전도를 위한 접촉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굉장히 극단적인 경향 속에서도 '휴먼 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관계 맺는 빈도가 계속 늘어나다가도, 거기서 부족함을 느끼면 다시 자연스럽게 휴먼 터치로 넘어옵니다.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캐치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를 말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컨택하고 선교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훈 교수: 덧붙이자면,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책에서 김우준 목사가 '코로나 이후 복음전도: 전도 전략의 재구성'에 대해 다루셨습니다. 미주 목회자이고 전도학 학위도 받으시고 복음전도 지향적 사역을 하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복음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큰 화두는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이는 예전처럼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벤트처럼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관계성을 형성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

요한 사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선교와 복음전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이제까지 해온 방식을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준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를 고민했을 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성으로 전도할 경우, 여전히 관계는 이뤄지고 일도 하고 있고 온라인 공동체도 있고 오프라인도 소수지만 계속 만남이 있습니다. 제한은 있겠지만,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전도를 위한 DNA를 갖고, 공동체와 개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려는 고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기회가 열렸고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이전 책과 글들에서 소개하신 미국의 선교적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지내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상훈 교수: 미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신 주목해서 봐야 할 곳들은 아무래도 젊은 교회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과거 사역을 반복하고 답습하던 교회들이 아니라, 새로운 마인드와 선교적 DNA를 통해 형성된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온라인 사역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기존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작은 공동체에 집중하고 목양하고 돌보는 일들이 교회 내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경제적·정서적·심리적·영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실제로



이상훈 교수는 “코로나19가 교회에 던진 과제는 너무나 무겁고, 솔직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대면하고 풀어나가는 일 자체도 버겁다”며 “그러나 지도자는 미래를 보아야 한다. 당장의 문제를 넘어 내일을 보고, 미래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접근하고 제공하고 케어하고 돌보면서, 복음의 메시지뿐 아니라 삶을 통해 교회들이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비난을 당했지만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이웃 섬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지향 미주 한인교회들 연합체인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에서도 중점을 뒀던 것이 교회 안팎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코로나가 그런 부분들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이후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신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정말 그

런가요.

이상훈 교수: 일례로 201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교회는 흥분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부흥의 기회로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 또 비슷해졌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기가 찾아왔기에,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영적 고민도 하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등 종교심이 생겼습니다. 구글 검색량을 보면, 하나님과 교회 등을 많이 찾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 분위기를 바꿀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일시적 현상이지만, 교회가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 등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반응을 잘 해서 영적 열매를 많이 거뒀다고 합니다. 불신자 등록이 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사역에서 단 한 가지만 남겨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상훈 교수: 저도 선교학을 공부했고, 선교학을 통해 신학적 관점과 사역 방향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고 교회에 선교적 사명을 위탁하셨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갱신과 각성, 연합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미약하지만 선교적 운동이 한국 교회와 미국 한인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삶의 여정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삼 목사님도 만나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품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한국과 미국 한인교회들을 연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대용 기자

'젊은이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젊은이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목사(성신대 영예교수), 이상훈교수(미성대), 송정영목사(복음번역 공동대표), 김준목사(중앙대), 신정민목사(동원대), 유권지목사(동일대), 김민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메리카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형 목사 책의 편저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젊은이보다 더 큰 목마름'(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파성도들의 순교장으로 기록되어 출간을 예정하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관주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 있다.

* 크레디트: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언젠가 하세요? 18년의 경력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이대원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2021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온라인 수업 제공 유학생 1-20 발급

모집 학위과정 및 지원자격

학위과정	지원자격
MATS (신학 석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M.Div (목회학 석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졸업자
D.Min (목회학 박사)	교육부 인가 M.Div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장학금
2021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장학금 혜택
목회자(30%), 선교사(40%) 장학금 혜택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서류심사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1년 5월 10일(월)~5월 28일(금)
합격자 발표	2021년 6월 10일(목)

입학 전형료 및 수업료

학위과정	입학 전형료	학점당 수업료
MATS (2년)	USD 50	USD 250
M.Div (3년)	USD 50	USD 250
D.Min (2년)	USD 100	USD 350

여름학기 일정(5주)
7월 5일(월)~8월 6일(금)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714)718-5239, (213)531-7215 /admin.kor@itsla.edu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
이영훈, Ph.D.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7

“멕시코 교회를 향한 선교사의 외침(1)”

신학교의 방학기간에도 선교사들의 사역은 여러모로 바쁘게 달려간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직접 방문하여 사역하는 단기선교팀의 방문이 없다.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창의적 단기선교가 줌 동영상 '목회자 IT 세미나' 그리고 'VBS' 다. 단기선교팀의 사역을 선교사들이 다 해야 했다. 그리고 주일엔 교회들의 설교 요청이 왔다. 한 현지 교회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 요약은 오늘날은 적었다. 언어와 민족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선포하였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 중에 선교를 우선으로 꼽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회는 선교의 출발을 마태복음 28장 18-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 명령이고, 또한 교회에게 주신 선교 지향적 선포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이 세상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꿈꿔야 할 예배다. 요한계시록 7장의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온 세상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자, 찬송이 없는 곳에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기도의 금향로를 온 열방의 민족들이 다 쬐야 모두가 존귀하신 하나님께 앞드려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는 선교한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온 세계가 인정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다. 그 자체가 생명이다. 성도의 수가 문제가 아니다. 재정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왜?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여 세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내는 전장의 기지이기 때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문이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살아 존재하는 악한 사탄 마귀다. 사탄도 영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거슬러 원수 되게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대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엢 6:12).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것을 성령이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다.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전신갑주의 능력이 주어진다.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이다. 쉬 없이 다가오는 미혹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성령의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것들을 이겨야 한다. 타협하여 넘어가서는 안된다.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선교라 믿는다.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대명제를 시작으로 하여 ‘선교의 사명’, ‘선교의 목표’, ‘선교의 방법’, ‘선교의 열매’, ‘선교의 비전’ 등을 나누며 훈련할 때 그 안에서 진정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열방을 품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행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열방을 향하기를 기도한다.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멕시코 교회도 이제 선교 지향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선교대상지에서 이제는 선교 파송지로 부흥해야 한다. 이는 우리 선교사의 새로운 사명이라 생각한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28 “헤롯 가문을 소개합니다(1)”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의 무죄를 설명할 때 베스도 총독은 설득을 당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판단을 보증하기위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그립바 2세와 그의 아내이자 그의 여동생 베니게에게 묻습니다. 그들도 바울의 결백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립바 2세와 베니게의 증조할아버지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대)왕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신약 성경에 여러 헤롯왕이 등장합니다. 모두 헤롯 대왕(혹 헤롯 1세)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서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을 만나는 헤롯왕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에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근방의 유아학살을 주도했던 헤롯입니다. 그의 막강한 권력, 헤롯 왕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붙인 이름이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입니다. 통상 헤롯 가문을 소개할 때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 사람들을 정리해 봅니다. 헤롯대왕에 이어서 유대지역 분할해서 통치했던 그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둘째 사람 아켈라오(마2:22)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이주합니다. 다음 헤롯 가문의 세 번째 인물은 분봉 왕 헤롯(마14:1, 눅 3:1, 3:19, 눅 9:7, 행13:1)입니다. 그를 ‘헤롯 왕’(막6:14)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마14:9)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냥 ‘헤롯’(눅9:9, 13:31, 23:7, 행4:27)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가문의 네 번째 사람은 이 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인 빌립입니다.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 다섯 번째가 ‘헤롯 왕’의 동생 빌립입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첫 남편(마14:3, 막6:17)입니다. 헤롯 가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디아(마14:3, 막6:17, 눅 3:19)와 그녀의 딸(마14:6, 막6:22)이고, 헤롯 가문 여덟 번째 인물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행12:1~2), 아그립바 1세입니다. 헤롯 가문에 아

홉 번째 사람은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행24:24)이고,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심문한 아그립바왕(아그립바 2세)과 베니게(행25:13)입니다.

초대 교회를 이해하려면 헤롯 왕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헤롯 왕조는 로마제국 제2차 삼두 정치를 배경으로 출현합니다. 제2차 삼두 정치는 레피두스(Marcus Aemilius Lepidus),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 옥타비아누스(Gaius Julius Caesar Octavianus)가 연합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합집산에 로마가 휘청거리고 유대 정치도 흔들립니다. 유대 정치의 혼란을 틈타 헤롯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유대 지역 패권을 장악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하스몬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인 아리스토틀루스(Aristobulus)2세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빼앗긴 히르카누스 2세는 절치부심하며 권력 되찾기에 골몰하였습니다. 로마 폼페이 지지에 힘입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자신이 팔레스틴 지역의 실세가 됩니다.

로마와 안티파테르의 지원으로 대제사장의 지위를 얻은 히르카누스 2세는 꼭두각시였고, 안티파테르는 실권을 가진 총독이 되었습니다. 안티파테르는 B.C 47년에 아들 헤롯을 갈릴리지역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헤롯대왕은 아버지 권력에 힘입어 유대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히르카누스 2세가 아리스토틀루스 2세를 누르고 제사장을 차지했지만 하스몬 왕조의 권력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잃었던 아리스토틀루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노스는 당시 로마의 숙적이었던 파르티아(Parthia) 왕조의 도움을 받아 권력 찬탈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안티고노스가 이깁니다. 그는 삼촌인 히르카누스가 다시는 대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귀를 자르고 바빌론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 안티파테르의 아들들도 히르카누스 2세 편에서 싸웠습니다. 패배하는 과정에서 안티파테르의 아들 파사엘은 체포되어 갈릴리에서 자살하였고,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던 헤롯은 카이사르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카이사르가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지방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안티고노스가 이미 유대지방 왕이었습니다. 이름뿐인 왕이었던 헤롯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 정권 탈환을 위한 전쟁을 합니다. 로마는 숙적이었던 파르티아와 눈이 가시었던 안티고노스를 몰아내야 했기에 헤롯을 적극 돕습니다. 헤롯은 2년간의 전쟁 끝에 안티고노스와 파르티아 세력을 몰아냅니다. 헤롯은 안티고노스와 다수의 사투개과 귀족들을 처형했습니다. 진정한 유대 왕으로 등극한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해까지 유대 지방을 통치합니다.

헤롯대왕은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점점 넓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으로 늘 불만에 떨었습니다. 첫째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유대 왕으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둘째 헤롯은 왕위 찬탈과정에서 흘린 피 때문에 배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한 그는 자신의 아들들, 아내, 장모, 처남 등등을 죽입니다.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아’를 묻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발각 뒤집혔고, 성경은 이 상황을 ‘예루살렘은 소동한지라(마2:3)’로 설명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찬양과 경배의 역사와 흐름

구약 시대 찬양과 음악 등에 대한 예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Levite)이다. 레위인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을 했는데, 주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을 수종 드는 일을 감당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장막의 일을 수행했으며, '예배를 통해 각 절기의 비밀을 누리라'는 뜻의 장막의 일과 백성이 드린 예물을 관리했다. 진설병과 소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만드는 일들이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찬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

민수기 18장 1-32절에는 레위인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 레위인의 임무와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며 지켜야 할 준칙들을 명령하셨다.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함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레 18:3-7)

한편 여호수아 13:32-33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지파라고 언급되어 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수 13:32-33)

다윗 왕 시대에 레위인들은 3개의 계급으로 나누었고, 각 계급은 다시 24반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계급은 사제직이었고, 둘째 계급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을 했으며, 셋째 계급은 성전지기 및 문지기였다. 그 밖에 모든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 외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생활을 유지

시키기 위해 48개의 성읍과 각각의 땅을 제공했다. 또한 국내 농산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주었는데, 그들은 다시 그 10분의 1을 사제에게 바쳤다. 이것이 십일조 제도의 기원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미 그 제도나 세례가 미약해져, 성전 제사 예식에서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다.

레위인들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배 사역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레위인은 성별된 자로서 찬양하는 일에만 열중했으며(대상 9:33, 23:5) 연주에는 찬송과 함께 하프, 심벌즈, 혼(Horn) 등의 악기가 사용되었다(대상 5:13).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대상 9:33)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매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삼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그 중의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요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대상 23:1-5)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대상 5:13)

레위인들에게 찬양에 대한 임무가 구체화되었으며(대상 15:22), 그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았다(대상 25:1-8). 예배 음악이 조직화되었고 많은 인원이 찬양 대원으로 임무를 맡았는데(대상 25장, 대하 5:12),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찬양에 참석했다(대하 5:12, 7:6).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돈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함께 서 있다"(대하 5:12)

"그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와 악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레위지파

있더라"(대하 7:6)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한층 확장되었는데, 각종 예식과 기쁨을 찬양으로 이끌었으며, 오늘날 예배 찬양 인도자의 역할과 비슷해졌다. 레위인은 성전의 공식적인 찬양대(대상 15:16, 대하 20:21, 왕상 10:12) 역할을 담당했으며, 다윗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도록 지명했다(대상 6:31-47, 16:4-7).

시편에는 노래하는 사람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신 구원과 사랑의 행동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시 78편, 81편, 105편).

레위인들이 예배와 관련된 많은 역할들에 집중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더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레위인들은 이와 같이 많은 예배 예식의 절차에 대한 직무를 수행했으며, 반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의 희생 제사를 보조했다. 또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큰 능력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호사밧의 군대가 적들과 대항하여 행진할 때 레위인들이 군대에 앞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적군들은 서로를 공격했고 혼란 속에 도망쳤다.

레위 지파와 레위인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육체적인 것, 즉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영적인 것, 즉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예배의 두 가지 측면, 즉 '마음의 예배'와 '표현의 예배'다. 하

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도 중요하며, 그 마음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도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 성경은 마음을 강조하는 예배와 형식과 절차를 강조하는 예배가 있음을 말해준다. 로버트 웨버는 이에 대해 크게 '성막 예배(Tabernacle Worship)'와 '다윗 예배(Davidic Worship)'로 구분하기도 했다.

'성막에서의 예배는 보다 격식 있고 세밀한 의식으로 구성되어있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신 예배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유롭고 즉흥적인 예배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행위로 받아주셨다.'

레위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예를 갖추며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주일 예배 등 공예배 예식의 모습 또한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한다고 해도 청년 학생을 포함한 다음 세대의 약 30%가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다는 최근 설문조사가 있다. 이들에게 레위인들은 사역과 임무 수행은 마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절차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준다.

최근 팬데믹을 계기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자칫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 지향주의적인 예배'의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의 최된 본성의 하나는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미국에서 케이블 TV를 통한 예배 설교 방송이 등장했을

때 환호성을 질렀던 많은 크리스천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일, TV 앞에 처음에는 경건하게 넥타이를 매고 예배 드리다가, 3개월 후 자유복장으로, 6개월이 지나서는 일어난 잠옷 그대로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당장 눈앞에 펼쳐질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

하나님께서 세운 레위인들의 사명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악화시키는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대하 8:14)



가진수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과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온라인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www.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gmail.com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과 교수이며 예배 관련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진수 교수 ©가진수 교수 제공

페이스북 COO “가상현실로 예배 드리는 날 오길 기대”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교회를 비롯한 다른 종교단체들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가상현실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 COO는 최근 일부 종교단체와 온라인으로 신앙과 관련된 모임을 열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신앙 공동체가 모일 수 없을 때, 페이스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유대 공동체와 원격으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기술 덕분에 우리는 집을 떠나 거룩한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전염병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은 전염병 기간 동안 성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샌드버그는 “지난 2017년,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자 사명을 바꿨다. 플랫폼이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배 처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페이스북 내부에 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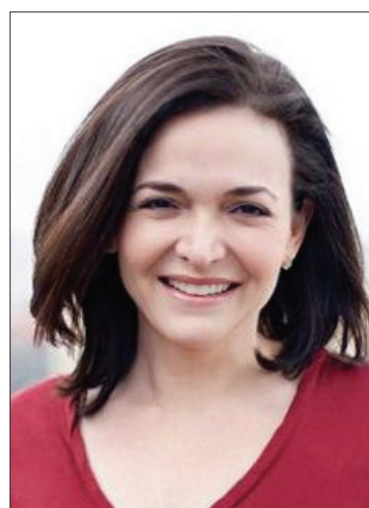
이어 “4년 후, 우리는 사람들을 믿음, 소망, 영감, 사랑과 연결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모였다. 페이스북은 큰 교단의 회원들이 공통점을 발견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더 오래된 전통을 지녔거나 더 규모가 작은 종교를 가진 이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서로를 찾는 곳이 될 수 있다. 언젠가 가상현실 공간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나 증강현실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기술이 예배의 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실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신앙 공동체들은 페이스북의 최고를 대표하고 있으며,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도 페이스북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플로리다 게인즈빌에 위치한 오픈도어선교회 소속이자 페이스북 글로벌 신앙 협력 담당자인 노라 존스 목사는 “페이스북 측은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비롯한 다른 종교단체들에게 페이스북이 단순히 프로그램 및 행사를 홍보하는 이상의 것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페이스북은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존스는 “여러분의 상당수는 신앙인과 종교 지도자들로서, 건강 문제로 물리적인 집회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이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일어나 디지털 영역에 대한 믿음을 갖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갖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들은 팬들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매일 반복적으로 유료로 지원할 수 있는 ‘팬 구독’(Fan Subscriptions)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크리에이터들은 최근 60일 안으로 1만 명 이상의 팔로워와 250명 이상의 재방문수, 5만 번 이상의 포스팅 참여, 18만 분의 시청 시간을 확보 중이어야 한다.

‘흑인교회의 동향’이라는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 교회에 매우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 41%는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온라인 예배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호한다’고, 7%는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CP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어 헌금함을 돌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점점 온라인 헌금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또 전 세계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 변화, 생명, 빛이 계속 존재하기를 소망하는 데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이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었다”고 했다.

한편 페이스북 대변인은 최근 CP

“무종교 미국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보다 백신 접종률 낮아”



미국 여론조사에서 젊고 세속적이라고 밝힌 미국인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보다 백신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라이언 버지 이스턴일리노이드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는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Data for Progress)’가 지난 5월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버지 조교수는 3일 ‘릴리전 언플러그드(Region Unplugged)’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이 최소 1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최소 1회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은 미국 개

신교인은 복음주의가 62%, 비복음주의는 70%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가 없는 미국인은 47%만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고 답했다.

버지는 또한 코로나 백신 출시 일을 조사하여, 나이와 종교적 정체성이 백신 접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인종, 소득, 교육, 성별 및 연령을 포함한 많은 통제 변수를 포함하는 회귀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요인을 통제할 때, 다양한 종교적 전통 간에는 백신 접종 가능성에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언론은 이목을 복음주의자들에게서 젊고 세속적인 미국인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다수의 미국 언론들은 프랭클린 그래함, 맥스 루카도,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들과 같은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지지했음에도, 많은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퓨리서치 센터’는 백인 복음주의자의 54%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계획이거나 이미 1회 이상 접종한 적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 수치는 조사 대상 종교단체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미국 가톨릭 신자의 77%, 무종교인의 71%가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겠다고 답했으며, 미국 흑인 응답자는 64%가 여기에 동의했다.

릴리전 언플러그드 보고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백신 접종을 안 한 개인뿐만 아니라 완전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일일 신규 확진 건 수가 44% 증가했으며, 새로운 환자의 3분의 1이 플로리다 또는 텍사스 주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김유진 기자

“목회자의 성적 일탈부터 제자 부족... 나쁜 습관의 결과”

미국의 한 목회자가 현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파괴적 패턴(목회자의 성적 일탈부터 광범위한 제자 부족까지)은 나쁜 습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를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디애나주 노스부교회를 이끌고 있는 스티브 포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턴을 구별하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습관의 존재’(Creatures of Habit: Breaking the Habits Holding You Back from God’s Best)라는 신간을 저술한 포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는 잠시 쉬다가 잠들게 되었다. 아마 목회자들의 잘못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기분 좋은’ 복음을 듣고 있다. 모두 무관심해졌고,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 목사는 “목회자로서 우리는 기꺼이 사람들을 불러내 ‘자,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삶을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들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는 교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제자화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분

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죄악을 깨뜨리신다. 그분은 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와서 ‘이해할 수 없다. 신앙인이지만, 여전히 막막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그들이 간혀 있는 이유는 몇 년간 발전해 온 이러한 습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습관들로부터 그냥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포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구분하고 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자유를 찾도록 돕고 있다. 그는 “우리는 삶에서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습관은 특히 제자화에 관해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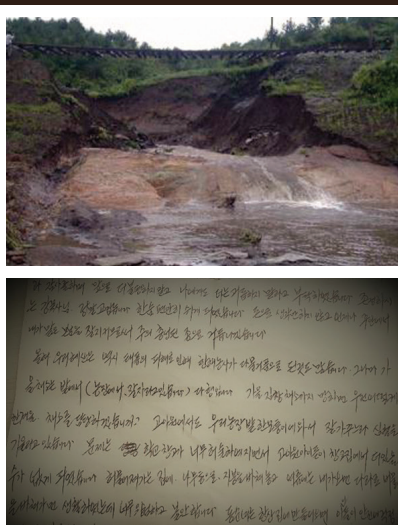
또 “우리는 스스로 이 같은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다. 이러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 목사는 코로나19로 교회 출석자들이 감소한 것과 관련,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생겨 교회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닮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_백상원 목사(편저자) 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움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팀 켈러 목사 “소셜미디어가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려면...”



팀 켈러 목사 ©A. Larry Ross Communications

TGC 코리아 북음연합은 최근 팀 켈러 목사(뉴욕 리디머 장로교회)가 ‘소셜 미디어가 양극화 대신 설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Can Social Media Foster Persuasion (Not Polarization))라는 제목으로 미국북음연합(www.thegospelcoalition.org)에 쓴 기고문을 번역해 게재했다.

팀 켈러는 이 글에서 듀크대 사회학 교수인 크리스 베일 박사가 쓴 ‘소셜 미디어 프리즘 깨기 : 사회의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될 양극화시킬까?’라는 저서에 대한 생각에 성경 말씀을 곁들여 소셜 미디어(SNS)의 건강한 소통 모델을 제안했다.

팀 켈러는 “크리스 베일 박사는 위 책에서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진영의 뉴스와 의견만 계속 노출시킴으로, 우리를 거품 속에 가둬 그 결과 분열과 극단주의를 조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의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정기적으로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일수록 오히려 견해에 대한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온건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팀 켈러 목사는 “소셜 미디어는 결코 사상 토론의 장이 아니다. 단지 자신을 정의하고 내가 속한 그룹에 신호를 보내는 방법일 뿐 아니라, 내가 반대하는 그룹과 관련지어 다른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그래서 논증을 논증 자체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사라진다. 물론 이것이 소셜 미디어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토론 방식은 아니지만, 가장 빈번하게 담론을 형성하는 역동성이라고 한 크리스 베일 박사의 의견엔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소셜 미디어는 극단주의를 조장하고 온건한 사람을 침묵시킨다. 좌파나 우파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또는 문화적 극단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반면, 중간자들의 목소리는 억압 한다”며 “베일 박사는 전체 트위터 사용자 가운데 6% 정도가 모든 트윗의 20%, 정치에 관련된 트윗의 70%를 생성

한다고 말했다.(책 76p) 그리고 6%는 주로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했다.

따라서 “베일 박사는 대안으로서 정체성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실제로 토론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가령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해당 포스팅에 동의하는 수준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 플랫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양측이 모두 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게시물에 대한 보상과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베일의 제안은 성경에서 내가 주목했던 사실들과 유사점을 가진다. 첫째, 야고보서 1장 19절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이다. 즉각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지 말고 팔로우한 뒤 잠시 들으라. 최선을 다해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 하라”고 했다.

이어 “둘째, 사도행전 17장 23절, 28절에서 바울이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 철학자들에게 연설할 때 인용했던 사상가는 다름 아닌, 그들이 따르는 에피메네테스와 아라투스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서 저자는 헬라 철학 용어인 로고스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째, 사도행전 17장 29절처럼 ‘당신이 설득하려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상대도 공감하는’(책 110p) 논쟁을 진행하라.”며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그들의 문화적 목표와 추구하는 이상 숭배 방식에 도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문화적 열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이어야 한다.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집단의 모든 주장이나 행동을 다 옹호하지 말고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걸지 말라”며 “다섯째, 사상과 정체성 사이의 고리를 느슨하게 유지하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했다.

팀 켈러 목사는 “바울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화를 내지도 위축되지도 않았다. 이것 또한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바울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받아들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바울이 말했듯이, 조금도 분노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열마든지 엄격하고 날카롭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도록 돕는, 굳건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제공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코로나서 회복된 故 빌리 그레함 손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손자 조나단 로츠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위독했지만 회복 돼 자택으로 복귀했다.

지난 3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딸인 앤 그레함 로츠의 아들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는 또한 폐렴에 걸리기도 했다고 앤 그레함 로츠 여사는 밝혔다. 로츠 여사는 “그러나 아들이 이제 자택에서 회복을 돕기 위해 퇴원했다. 큰 발견을 내민다”라고 말했다.

로츠 여사는 빌립보서 1장 3-6절을 인용하면서 조나단을 위해 기도해 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글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빠른 회복을 위해, 그리고 합병증 없이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도록 계속 기도해달라. 제가 그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며 “기도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길...”이라고 글을 올렸다.

조나단과 앤 여사 모두 암에 걸렸으나 회복 한 바 있다.

앞서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조나단은 자신의 신앙을 병원 직원들과 나누



조나단 로츠. ©앤 그레함 로츠 페이스북

고 있다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냈다.

그는 “나는 육체적으로 지쳤지만 영적으로는 넘쳐난다!”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여동생 레이첼-루스 로츠 라이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나단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루스는 “그의 태도는 내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폭풍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는 새벽 3시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시 바치고 싶어하는 간증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LA 지역

주일에 오전 11:00
주일에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에 오전 11:00
주일에 오후 7:00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00
토요일에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 오전 5:20(월, 금)
3부예(제세대에)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를 위한, 이민자를 위한, 선교를 위한, 신교를 위한, 신교를 위한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 오전 8:30
주일2부예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 오전 9:00 어린이예 오전 11:00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 오전 11:00 토요일예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 오전 8:00 새벽예 오전 5:30(월, 금)
2부예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 오전 7:30 새벽예 오전 5:30(월-토)
2부예 오전 9: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0:30
4부예 오후 1:30(영성예)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 오전 9:00 성인 EOM예 오후 12:30
2부예 오전 11:00 한이청년예 오후 12:30
청양예 주일오후 2:30 새벽예 화-토 오전 6:00
수요일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 오전 8:00 수요일 저녁 7:30
2부예 오전 11:00 새벽예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성지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 오전 11:00
금요찬양예(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얼예(델리예) (소세예)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 오전 10: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 오후 1:00 새벽예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신, 전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 오전 10:30
2부 예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 오전 5:30(월, 금) 신묘노키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8-9999 / www.smkc.us

주일1부예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 오전 11:00 금요찬양(월, 화)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예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에 오전 11:00
목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 오전 8:00 금요일예 오후 7:30
2부예 오전 11:00 새벽예 오전 5:30(화-토)
수요일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0:00
3부예 오전 11:45
4부예 오후 1:30, 금요일 예 오후 8:00
새벽예(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
2부예 오전 11:00 새벽예 오전 5:30
어린이예 오전 11:00
중고등부예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갈라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 오전 7:30 중고등부 예 오전 10:00
주일 2부 예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 오전 11:00
영아예 오전 11:00 청년부 예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화)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 오전 11:40 새벽예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 오전 9: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 후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안 한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금)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이드) (마지마주)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령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찬양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블리제들 MP제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회 오전 9: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중교등부 오전 11시 (금요주중예배: 오후 7:30)
185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3-686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교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인도, 기독교 개종 감시 강화... 수크마 지구 모든 경찰에 명령

인도 한 지역의 모든 경찰서에 기독교인에 대한 감시와 개종 활동에 대해 보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에 따르면, 차티스가르 주의 수크마 지구 경찰청장이 최근 모든 지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기독교계를 감시하고, 사기성이 있는 종교 개종을 경계할 것과 적발시 기독교인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 단체는 해당 공문이 발송된 후, 수크마 지구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의 사건이 여러 차례 보고됐다고 밝혔다.

수크마 출신의 기독교인인 비마 씨는 ICC에 “7월23일 기도회를 하는 동안 4명의 경찰이 우리 마을에 왔으며, 개종에 대해 물었다”며 “경찰이 마을을 떠난 후, 마을의 힌두교 급진파는 모든 교인들에게 육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를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했다.

또 다른 지역 목사는 마을의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를 중단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전했다.

인도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145건의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으며, 그 중 3건의 살인, 22건의 교회 파괴, 20건의 농촌지역 파달림 또는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오픈도어즈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은 “현재 집권 여당(바라티야 자나타당)이 2014년 집권한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 사건

이 증가했으며,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은 종종 아무 맥락 없이 기독교인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개종방지법(anti-conversion law)’을 승인한 우타르 프라데시 주는 7월에만 최소 30명의 기독교인들이 강제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종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됐다.

윌리엄 스타크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다른 주와 같이, 우타르 프라데시의 개종금지법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는 급진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타르 프라데시 정부가 이런 일을 계속 허용한다면, 급진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예배당을 폐쇄할 절대적인 면책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주에서는 개종금지법이 수십 년째 시행되었지만, 강제로 개종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률의 모호성 때문에 급진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데 널리 악용되고 있다.

반개종법 조례의 일부에는 기독교인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전도 모임 이후에, 기독교인이 힌두교도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유인” 행위로 간주된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79.5%가 힌두교이며 기독교인은 2.5%에 불과하다.

오픈도어즈 USA는 2021년 세계감시 목록에서 인도를 기독교 박해국 10위에 선정했다. 이미경 기자

나이지리아 무장세력 공격에 기독교인 7명 사망, 가옥 300채 파괴



2018년 플라니족의 공격으로 파괴된 가옥의 모습 ©World Watch Monitor

나이지리아에서 플라니 목동 급진주의자들이 배후로 지목된 테러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300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아이리그웨 개발협회(Irigwe Development Association)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플라니 무장 세력이 7월 30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플라토 주 미양고 지구의 마을들을 공격했다.

성명은 이번 공격으로 약 100에이커에 달하는 농지가 파괴되고, 최소 250채의 가옥이 불에 탔으며,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또 무장 세력들이 여러 집단으로 조직되어 농작물을 파괴하고, 각 가구들을 약탈한 후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에제키일 비니 IDA 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제까지 잔와라, 카파추두, 크파텐비엔 등 일부 지역에서 플라니 무장괴한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9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비니 회장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총 275채의 가옥이 불에 탔고, 여성, 어린이, 노인 등 2만 2천명의 실형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양고 지구의 인근 지역 마을과 조스 지구로 이주하고 있다.

단주마 디슨 아우타 IDA 사무총장은 데일리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국민이 집을 잃고 농장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해됨에 따라 정부와 보안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우타 사무총장은 이러한 많은 가정과 농장이 파괴되는 일들이 “비정한 사람들”에 의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구호 단체인 ‘바나바

스 펀드’는 이번 공격이 주로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플라니 목동 옹호단체인 ‘미에티 알라 가축사육협회’의 누라 무하메드 회장은 공격의 책임이 플라니 족이 아닌 아이리그웨 청소년들의 소행이라며, 지난 주말동안 플라니족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더 선 뉴스에 따르면, 플라토 중앙 지구 의약품 및 마약 상원위원회 의장인 히스기야 아우바 님카 의원은 보안기관에 범 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딘카 상원의원은 “리움, 바킨라디, 바사, 조스 사우스 및 스키스트 지역사회가 연일 강도 높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농지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불구로 만들었으며,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번 공격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사법부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박해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내부의 지역 담당자가 피해 지역을 방문해 공격을 확인했다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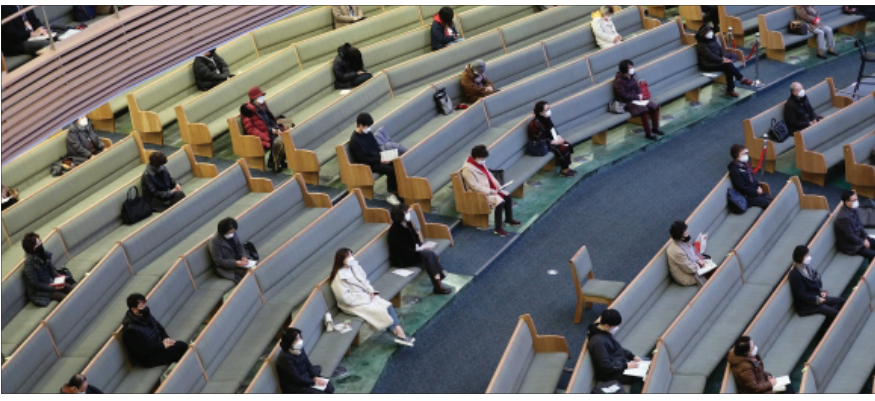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담당자의 말을 인용,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리를 배신했고, 우리의 신앙을 이유로 총포를 아래로 떨어지도록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아남브라에 본부를 둔 ‘국제시민자유 및 법치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이미 3,400명 이상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현재 나이지리아는 인구의 절반 가량인 95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살고 있으며, 무슬림 신자의 수와 엇비슷하다.

이미경 기자

한국 정부 4단계, 대면예배 '수용인원 10%-최대 99명까지' 가능



사랑의교회가 지난 1월 24일 예배당 좌석 수의 10%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그외 모인·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코로나19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발표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다.

정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

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 종교시설 내 정구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구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간첩 잡고도 간첩죄 적용 않는 文 정권 규탄”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됐다. ©채널A 캡처

106개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106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간첩을 잡고도 간첩죄 적용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일 성명에서 “최근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는 북한과 연계된 2건(이른바 427연구원 이정훈 사건, 청주 활동가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구속 또는 기소하였다”며 “먼저 어려운 안보수사 환경 속에서도 국보법 위반자를 검거한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요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두 사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을 국내에서 점선하여 회합, 통신하고 그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목적수행을 했는데도, 국보법 제4조 목적수행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하였다. 모처럼 명백한 간첩을 잡고도 간첩죄를 적용 안하고, 회합통신죄 등으로 축소 수사하는 당국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김정은 집단의 눈치를 보며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안보수사당국 지휘부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적행위이다. 문 정권과 국정원장 등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 지령을 받아 반국가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발호하며 안보를 위협하는데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낡아간 정치인들과 특정 이념편향세력들에게 경고한다”라며 “진정 국보법을 폐지하여 간첩들과 안보위해세력들의 추구하는 공산화 세상을 열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송경호 기자

김동호 목사 사칭 '유튜브 보이스 피싱' 경고

에스켈 선교회 김동호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유튜브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 목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이름을 사칭해서 유튜브에서 기부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는 분에게 김동호 목사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제 사진까지 넣어서 마치 제가 보낸 것처럼 댓글을 보내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 같은 안내문을 보냈다고 한다”며 상세한 설명도 보냈다. 안내문에는 “나이 제리아의 어머니 없는 고아를 돕는 DIVINE BLESSING ORPHANAGE HOME FOUNDATION 재단에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에 김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후원금을 잘 모으는 것을 알고 그러는 것 같다”면서도 “글 쓴 것을 보니 한국 아닌 의

국에서 번역기를 돌려서 글을 쓴 것 같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 때문에 후원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치게 되면 에스켈 선교회 운영이 어려워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앞으로 또 후원을 요청할 일이 생기면 보이스 피싱에 대하여 조심하시라는 안내를 함께 드릴 타이니 조금만 조심해서 확인하시고 보내달라”며 “이번 보이스 피싱에도 김동호 목사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제 사진까지 동영하였지만 그 글을 보낸 사이트를 클릭해보시면 거의 내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사이트에는 수 천개의 올린 글이 있고, 김동호 목사 아카이브에도 1,000개 가까운 동영상 올라와 있으니 어렵지 않게 사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청,한예)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생명의 나무를 심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세백예배 오후 5:30(토)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벤엘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교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교회 오후 8:00
종교동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재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세백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종교동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재 금)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예배: 주일 오전 11:00
종교동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 오전 6:00(화-금)
셀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종교동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45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별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mmool.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종교동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양부 오전 11: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 수시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1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중세교회사	Daniel Min
Wed	8:30 PM - 10:30 PM	시편강해2	Timothy Song
Thu	7:30 PM - 9:30 PM	고린도전후서	James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2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멈춤의 은혜 그리고 지혜

며칠 전 저희 집 화장실 변기물이 멈추지 않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물이 잘 멈추질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물을 멈추게 한 후, 새벽 기도회에 나오면서 멈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멈춤에 대해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추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최근 흉수로 물 사태가 나는 것을 보면서 비가 멈추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면 큰 일 납니다. 비가 멈추지 않으면 댐이 무너집니다. 작은 댐이 무너지면 큰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지구온난화로 폭풍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친 폭풍도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을 봅니다. 폭풍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몸의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심방세동 시술을 받은 후에 수술의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시술한 부위의 피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지혈(止血)을 위해 6시간 동안 꼼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가 온전히 멈춘 것을 거듭 확인한 후, 퇴원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멈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가 범한 죄의 열매는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날 이후로 더 이상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멈출 줄 알아야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딱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이토록 탐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은 잘못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창 3:6). 잘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시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바라보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좋은 차입니다. 브레이크가 좋은 차는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멈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의 하나입니다. 절제란 멈출 줄 아는 능력입니다. 절제란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절제란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욕망과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절제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제는 자족의 비밀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즐길 줄 압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절제의 미학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멈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멈춤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멈춘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멈춘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받으신 까닭입니다. 십자가는 멈춤의 장소이면서 또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멈춤이 있은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일은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멈춤과 복된 시작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6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감사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충현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성 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사역하신 고 정상우 목사님과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위대한 개척자들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1989년부터 시작된 세계선교가 32년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되게 하시고 그동안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던 젊은 부부가 낳은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사회의 역군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2년까지 이전의 발레호 드라이브의 안식교를 빌려 쓰던 시절, 열심히 청소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던 중진들은 이제 교회의 원로가 되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교회의 증인들이 그동안 사랑하던 교회를 위하여 아직도 기도하고 출석하고 지키고 계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몸심양면으로 봉사하신 건실자 되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도 현직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충현과 캐리스의 목회자들, 헌신된 봉사자와 교육부 교사들, 그리고 기도의 300명 용사를 꿈꾸는 중보기도자들, 각 예배의 찬양대원들과 교구의 모든 헌신된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36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분당을 건축하고 커뮤니티를 위하여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더욱이 이데히스트 크리스천 프리스쿨과 킨더가든을 창립하면서 학교교육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무명 성도께서 거금을 쾌척하여 주심으로 LED 화면을 설치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청빙위원의 노고를 통하여 새로운 3대 담임목사를 부르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36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충현선교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세계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신홍·배복실 선교사님께서 멕시코 엔세나나의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램초 라마의 사역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기도로 열어가고 그 주변에 사랑과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큰 일을 지원할 것입니다. 36주년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 19의 기운이 다 가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이 땅에서 남은 자로 만드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주안에서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 지도자들의 굴복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일제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전인 1938년 4월 일제는 한국 기독교의 각 파 지도자들, 유행기, 최석모, 김응조, 정정심, 박연서, 김유순, 김중우 등을 서대문 경찰서에 모아 놓고 교회가 신사참배를 이행할 것과 일본적 기독교에 입각하여 황도정신을 발양(發揚)한다는 결의 및 선언문을 채택케 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부민관(府民館) 대강당에서 일본적 기독교 창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기독교연합회’가 발족하였다. 6월에는 조선 YMCA가 세계 Y연맹에서 탈퇴하고 일본 Y에 예속되었고, YWCA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하였다.

1938년 5월 일제는 내선(內鮮)이 기독교로 융합해야 한다는 명

목으로 친일파인 오문환으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하던 이승길을 포섭케 하여, 김응순, 장운경 등 3인을 일본에 보냈다. 이들은 “신사참배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일본 관민의 열성어린 환대에 감격하여 돌아왔다.”

다음 달 6월에는 일본 기독교 대회회장 부전만(富田滿) 목사를 평양에 초청하여 평안도 내 교계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모아 신사참배에 관한 강연과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신사참배는 종교행사가 아니라 국민의례임을 강조하다가 주기철 목사, 손양원 전도사(손목사는 해방 후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음)로부터 거센 반박을 받기도 하였다.

1938년 9월의 장로교 총회 때에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사참배 결의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일제는, 우선 각지에서 모이는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공작을 수행하였다. 노회가 모일 때 회원들로 하여금 먼저 신사에 참배하도록 온갖 압력을 가하였다.

이 같은 강압으로 인해 1938년 2월 전국에서 가장 교세가 강한 평북노회는 전 일본 헌병 보조원 출신의 친일파 목사 김일선(평북

龜城 造岳洞교회)이 노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그의 주동으로 선 천 남교회에서 모인 노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무릎을 꿇은 이래 9월 총회까지 23개 노회 중 17개 노회가 굴복하고 말았다. 각 노회에서 선출된 총회 총대들은 그 지역 경찰서로부터 총회에 가면 신사참배 안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둘 다 못 하겠으면 총대를 사퇴하라는 강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총대들이 총회에 갈 때 사복형사 두 명이 함께 동행하여 이들을 감시하였다.

1938년 9월 9일 오후 8시, 조선 예수교장로회 제27차 총회가 평양 서문밖예배당에서 총회장 이문주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날 저녁 임원 선거가 있었다. 이때에도 서로 총회장이 되려고 운동을 하고 다녔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 안이 가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사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장본인들로 길이 남을 것을 미처 몰랐을까? 임원을 선거하니, 회장에 홍택기, 부회장에 김길창, 서기에곽진근, 회계에 고한규가 선출되었다.

불법적으로 신사참배가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총회장 홍택기는 신사참배를 운명으로 막고 순

교한 주기철 목사와 신학교 동기 동창으로 이렇게 상반된 사적을 남긴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튿날 신사참배 안이 상정되던 날에는 평양 경찰서 경관들이 예배당을 삼엄하게 에워싸고 일체의 방청객 출입을 막았으며, 예배당 안 강대상 전면에는 평안남도 경찰부장 등 간부들 수십 명이 긴 칼을 쥐고 버티고 앉아 있었다. 또한 총대들 사이사이에는 사복경찰들이 끼어 앉아 있었고, 양편 좌우에도 무장경관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다.

일제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채정민, 이기선, 김선두 목사 등을 미리 투옥시켰고, 선교사 총대들에게는 신사참배 안이 상정되면 침묵을 지키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선교사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반면에 친일파 목사 이승길과 평북노회장 김일선 등이 주동이 되어 신사참배 결의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아침 경건회가 끝나고 회의가 속회되자, 각본대로 평양, 평서, 안주 3노회 공동 발의로 신사참배 안을 평남 경찰국에서 지명 받은 평양노회장이며 중화(中和)읍교회 목사였던 박응룡이 “당국에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 선언하니 우리 총회도 신사참배하기를 결정함이 가합니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평서노회장 박임현의 동의, 안주노회 총대 김일섭의 재청으로 상정되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총회장 홍택기는 수많은 경찰들의 위압에 놀려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에 찬성을 묻자 “두어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니 마귀의 예였다.”고 김린서 목사는 기록하였다. 그 때 대부분의 총대들이 침묵하고 있었으니 이는 곧 거부 뜻이었다.

많은 총대들의 침묵에 당황한 경찰들이 일제히 일어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놀란 총회장은 부(否)는 묻지도 않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회의 법상 ‘부’를 묻지 않은 것은 불법이었고, 두어 사람이 “예”라고 한 것을 만장일치라 했으니 이는 거짓이었다. 따라서 장로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안은 가결된 것이 아니었고, 회장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뿐이었다. 이 때 봉천노회 소속 헌트(B.F.Hunt, 함부선) 선교사가 “의장, 불법이요!”라고 소리치며 일어나자 일경들이 때로 달려들어 그를 밖으로 끌어내 버렸다. 이로써 한국 장로교회는 후세에 길이 남을 오욕의 역사를 남기고 말았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멀티슈
 주일제전
 253곡
 공미라고
 마그네틱8원형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살리시며 이끄시는 섭리

출애굽기 16:1-10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이월 십오일이라 2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중략)...그 말을 들으셨음이나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교회는 '에클레시아(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라고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소명(召命)받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입니다. 죄 값으로 말미암아 곧 멸망할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어 모이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을 떠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림은 숲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숲이 우거졌다고 하면 오아시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이 열두 개가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실컷 마실 수 있었고 종려나무가 우거져 더위를 피할 수 있었던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가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제이월 십오일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데 짐을 챙겨놓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 끈을 졸라맨 후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제 14일 밤이 지나면 15일 되는 새벽에 애굽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월 15일에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 엘림에 도착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7군데나 머물렀다 온 것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한 훈련과정의 광야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천국에 가기위한 교회생활이 이들의 광야생활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출애굽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라와 주기만하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데 그들은 감사함보다는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값이 내리게 하셔서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며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그들을 배불리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시험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배불리게 먹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계속 감찰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고 거역하면 없애 버리십니다. 히브리서 3:17-19에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었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명하여 구름기둥 아래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 회중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동행하고 계실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생각, 말을 점검하시고 전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의 신앙 훈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오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닌다고 천국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 하시는 대로 가는 도중에 생기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문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은 영적소망을 위한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늘나라까지 물려주실 뜻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신세의 이스라엘을 해방시킴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한 계획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확인되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은 것입니다. 영권이 회복되고나니 인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도리어 애굽 사람들이 금은패물을 손에 쥐어주며 애굽을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사람취급도 안했던 애굽인들이 그들의 신세가 비참해지면서 자신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을 나가달라고 애원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인들로 하여금 400년간의 종살이 품삷을 한꺼번에 받아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나니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 대접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과 물질 관리권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리지 않게 하시려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고센 땅을 떠날 때 입었던 옷이 40년이 지나도록 헤어지고 낡아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뜨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건전한 생각과 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시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국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국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마블의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로 신화적 세계관 확장 계속하는 마블 유니버스

블랙 위도우, 슈퍼히어로보다 일반인 가까운 인물
폭력과 기만과 투쟁으로 점철된 삶, 커다란 압박감
문제 해결 과정 살인과 파괴로 쌓인 원한으로 불안
참신했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로 피로감 쌓이는 중

◆마블의 새로운 페이스: 오랜만의 마블 개봉작, <블랙 위도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극장가는 그동안 개봉을 미뤄왔던 기대작들이 하나 둘씩 발표되면서 약간이나마 활기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 주 전 <분노의 질주: 더 열티메이트>가 개봉해서 누적 관객 수 210만을 기록했고, <크루엘라> 역시 누적 관객 수 180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난 주에는 오래간만의 마블 영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 첫 번째 작품 <블랙 위도우>가 개봉해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마블 영화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때는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 4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한 시점이었다.

2016년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이후, 4년간 이어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 번째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한 작품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다음 작품인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페이지 3의 마지막 작품이다. 하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기억이 매우 강렬하기도 하고,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페이지 4의 프롤로그라도 봐도 무방하므로, 사실상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페이지 3의 종결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던 마블 영화들이 작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리고 1년 넘게 주요작들이 개봉을 연기하던 와중 오랜만에 심사된 마블 영화 개봉은, 슈퍼히어로 영화 팬들에게 크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비평하는 입장에서는 <블

랙 위도우> 같은 영화의 개봉이 크게 반가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피로감이 느껴질 지경이다.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스토리와 연출은 거의 다 나온 상황이라, 사실 마블이든 DC든 어느 회사에서 작품을 내놓아도 큰 기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마 평론가들뿐 아니라 상당수 관객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다.

<블랙 위도우> 역시 그동안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붙잡고 늘어지던 서사 요소들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작품이다.

물론 주인공 나타샤 로마노프(스칼렛 요한슨 분)는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과 비교하면 슈퍼히어로보다는 일반인에 가까운 인물이다.

과학을 통한 신체개조를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며, 초능력 혹은 신비한 능력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혹독한 세뇌와 비밀요원 훈련을 받은 스파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벤져스의 일원으로서 간간히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당시 닉 퓨리가 사라지자 뒤를 이어 실드의 수장을 맡았다.

이를 통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멤버들이 다시 모이는 구심점 역할을 했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사라진 이들을 되돌아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실상 어벤져스의 다른 초인들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는 캐릭터가 되었다.

◆마블의 새로운 변주곡: 고대 신화 형성방식을 답습하는 마블

그렇다면 어벤져스라는 초인 그룹의 확고한 멤버 나타샤를 둘러싼 서사의 소재, 즉 그녀가 겪어야 할 난관은 무엇인가?



코로나로 개봉이 연기되었다가 최근 발표된 마블의 신작, <블랙 위도우>.

가장 먼저는 과거 기억과 정체성 문제이다. 평범과는 거리가 먼, 폭력과 기만과 투쟁으로 점철된 삶이 그녀의 마음에 커다란 압박감을 준다. 게다가 영화 속의 나타샤는 철저히 타의에 의해, 세뇌에 의해 불행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블랙 위도우> 서사의 핵심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그녀가 겪는 문제는 자신이 얻게 된 힘을 사용하면서 생겨난 갖가지 위기와 원한들이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결국 전투 상황에 관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행한 살인과 파괴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원한을 쌓게 된다.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인생 전체가 불안과 격동에 휩싸이게 된다.

방금 언급한 나타샤의 두 가지 문제는 마블이든 DC든, 거의 모든 슈퍼히어로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이다. 일반인을 능가하는 힘을 가졌지만, 사실상 정신만큼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대다수의 슈퍼히어로들이다.

이들의 활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에게 남겨지는 PTSD 역시 커진다. 참전용사들이 자주 겪는 불안, 감정의 격랑, 폭력성 등이 히어로들 각각의 삶을 망가뜨린다.

결국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자의 삶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지키는 영웅의 이야기가 마블 영화들의 공통된 주제인데, 이 동일한 주제 하나를 설득력 있고, 매력 넘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변주 기법을 동원하는 것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환상과 추가설명이다. 동일한 주제를 가진 이야기라도 적절한 환상이 곁들여지면, 다른 방향의 매력을 갖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 뒤에 이를 설명하는 다른 이야기, 즉 프리퀼, 시퀼, 스핀오프 등을 통해 앞서 설명하지 못한 서사의 허점이나 설정 구멍을 채워 나간다.

여기에 더해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라도 마치 또다른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처럼 꾸며낸다. 마블 시나리오 작가들과 연출가들은 이러한 방법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문학적 기법의 시초는 고대의 다신교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켈트 신화, 게르만 신화, 이들 다신교 신화 모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리스 신화의 예를 들면, 우선 그리스 신화의 시초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폴로니오스의 <아르고나우티카>, 둘째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셋째는 헤시오도스의 서사시들이다.

물론 세 사람 모두 각자가 집필한 방대한 신화를 스스로 창작해낸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신화들을 수집하고, 이 신화들을 역사적 사실들과 조합하고, 여기에 자신의 풍성한 상상력을 더해 하나의 체계로 집대성한 것이 그리스 신화의 시초이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거친다. 호메로스 이후 유명한 시인들과 극작가들이 <아르고나우티카>,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헤시오도스 서사시>의 설정과 암시, 복선을 기반으로 시퀼, 프리퀼, 스핀오프를 창작했다.

그리스에서는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의 희곡 작가들, 로마에서는 베르길리우스와 오비디우스 등의 시인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신화의 체계는 처음 접하는 순간에는 충격적이고 매력적이다. 세계와 인간의 기원, 존재의 진리, 고통의 원인, 행복의 길, 삶의 목적 등이 모두 총망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화를 읽어가는 대다수의 독자들은 어느 순간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 방대한 체계를 이루는 세부 서사들 대부분이 사실상 거의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이리저리

조금씩 변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와 같은 다신교 신화들이 내세우는 주제는 다음의 진술로 압축된다. “신들은 다양하고, 각각의 신적 속성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간이 신들을 거스르지 않고 잘 모시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최선을 다해 신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조화롭게 섬겨야 한다. 그래야 저주와 불운을 피할 수 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들은 고대 신화와는 분명 다른 주제를 내세우고 있다. 마블 작품들은 일반인을 능가하는 힘에도 불구하고, 고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엑스맨 시리즈의 <로건>과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두 작품 모두 결국은 초인적 힘이 주는 고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로건>에서는 울버린이 죽음을 맞이하며 긴 삶의 질곡을 끝내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블랙 위도우와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노쇠하여 은퇴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서사들은 하나하나 따로 봤을 때 분명 참신한 매력을 갖는다. 하지만 결국 유사한 주제의 이야기가 14년 넘게 연속된다면, 개별 서사가 아무리 참신하더라도 독자나 관객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블랙 위도우>로 본 현재의 마블, DC 영화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슈퍼히어로 코믹스의 역사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대개 10-15년 정도의 전성기를 거친 뒤, 결국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데 실증을 느낀 대중이 슈퍼히어로 콘텐츠를 외면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엑스맨> 시리즈를 실질적으로 마감하는 작품 <로건>. 마블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힘에 휘둘리는 인간들의 서글픈 운명을 이야기한다.



나타샤 로마노프(스칼렛 요한슨 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스핀오프 <블랙 위도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의 첫 번째 작품이다.



나타샤를 비롯한 마블 슈퍼히어로 멤버 모두는 자신이 가진 힘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과 원한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뇌를 겪는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나중에 '이불킥' 하지 않도록... 중요한 일, 선택 잘하는 법

정치가 세종은 조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세종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처음으로 만나는 '입체적인' 세종



세종의 선택
백승중
사우 | 312쪽

역사가
백승중이
선입견 없이
살펴본
세종과
그의 시대

세종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 성군이라 불린다. 간혹 세종으로 인해 노비 인구가 급속히 팽창했고, 기생제도가 창출되었으며 사대주의가 극심했다며 세종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세종에 대해 완전무결한 영웅 혹은 조선 사회의 폐단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미화되거나 폄하된 상을 갖고 있다.

가끔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다. 그날 하루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에 후회가 물려올 때다. 이미 지나간 결정이지만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아, 좀처럼 떨쳐버리기 힘들다. 이럴 때는 시간을 되돌려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고 싶어진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15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 150가지의 선택 중 마음에 드는 선택은 얼마나 될까?

성장한다는 말은 선택의 가지 수가 늘어난다는 말과도 같다.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되었을 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 혼자보다는 가족이 있을 때 선택의 어려움을 느낀다. 말단 직원보다는 직장 상사가 선택의 책임이 따른다.

늦은 밤 잠에서 깨지 않고 꿀잠을 자고 싶다면,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세종의 선택>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 혹은 현왕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분석한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해야 할 선택 앞에서, 조선의 현왕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 비결을 알면 조금이라도 편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은 문제를 깊게 볼 줄 알았다. 세종의 선택에는 확실한 철학이 있다. 세종은 사회적 약자를 잘 배려했다. 여성과 노비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았다. 당시 노비에게 10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해 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본래 그들에게 허용된 출산휴가는 7일이었다.

100일간의 출산휴가를 명령한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내 백성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선택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바꾸기 위한 선택을 내렸다.

세종이 다스리기 시작한 초기에는 기근이 유난히 많았다. 백성들은 가난 때문에 어린 자식과 연로한 부모를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유이민이 발생한 것이다.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다.

세종은 기준에 있던 중국에서 만

들어진 농업 서적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즉시 나라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농부들에게서 농업기술을 수집했다. 모여진 농업기술을 토대로 <농사직설>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세종의 선택은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깊게 보는 선택이었다. 문제의 표면만 보게 되면 임시방편의 선택밖에 할 수 없다. 결국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한 번의 선택을 해도 깊이 있게 문제를 관찰하고 본질을 해결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세종대왕세종은 선택에 앞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았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종은 세계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왕이기도 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이에 세종은 선택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백성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물었고, 모인 의견을 토대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 15세기에

전국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세종은 중요한 선택을 앞서 주변 신하들의 의견을 물을 줄 알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황희 정승이다. 황희는 세종의 의견을 듣고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종도 황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 서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좋은 선택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된다. 마지막 선택은 자신이 내리는 것이지만, 주변의 말을 듣고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의 선택 마지막 단계는 심사숙고다. 마음에 결정이 섰다 해도, 쉽게 선택하지 않았다.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생각했다. 그 이유는 누구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세종은 실용적인 개혁을 추구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혁에는 피해가 따라온다. 세종은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도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고민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폐정책이다. 15세기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현물 화폐만 사용했다. 현물 화폐는 무겁고 운송하는 수고도 많았다. 세종은 현물 화폐를 동전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화폐정책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진가를 인정받게 되지만, 그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세종도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를 선택해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문제를 깊게 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했다. 그 결과 후회되는 선택보다 잘한 선택을 더 많이 한 왕으로 남게 되었다.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몇 번 찾아온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 성령님은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 내면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셔서 선부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후회 없는 선택으로 더 이상 잠에서 깨는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세종대왕

Advertisement for PRO-Z Gold capsules, featuring a bottle image, text about diabetes treatment, and a price list for different quantities.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미주한인이민 118주년/

광복 76주년 건국 73주년 기념감사예배

Independence Day Korea Worship Service



임성환의원 최석호의원 Jenny Rae Dr. Hiebert Mayor Eric C. 조현영목사 심명구목사 이우호목사

Korea
Pyongyang
Bay Nampo

Aug. 15, 2021 4 PM
Vision Community Church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영적대각성 성령애국집회

“한반도와 미국의 복음화 이루자”



홍남, 원산 철수작전 군함

S.S. Lane Victory

USA-Korea Mutual Defense Treaty



America Korean United Foundation, USA
www.kausanews.com or www.crkpc.org

Co-Host: Coral Ridge Korean Presbyterian Church, Joy Ministry(HIM), 큰빛교회, 한민감사교회